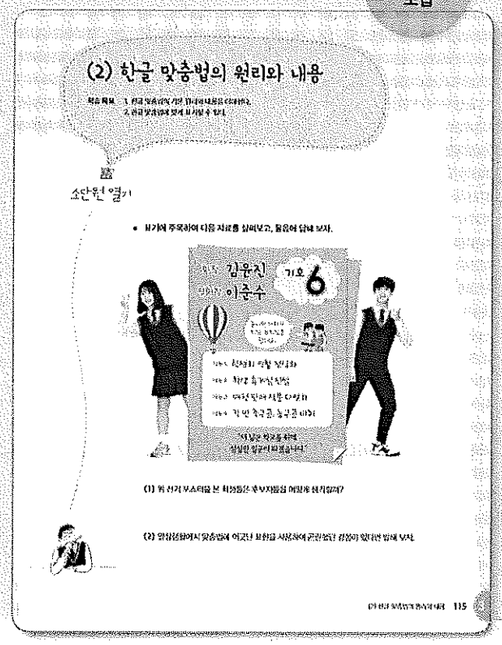
(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소단원 도입


(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소단원 열기

● 표기에 주목하여 다음 자료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김유진
이순수
기호 6

(1) 위 선거 포스터를 본 학생들은 후보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2) 맞춤법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여 곤란하다는 감정이 생기는 방법에 보자.

115

소단원 지도 안내

이 단원은 이전 학년까지 부분적으로 배운 '한글 맞춤법'을 관통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일일이 암기식으로 학습시키기보다는 본문 제재를 통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 후, 다양한 학습 활동을 활용하여 실제 언어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을 선택적으로 지도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이 정확한 표기 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소단원 학습 목표

1.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2.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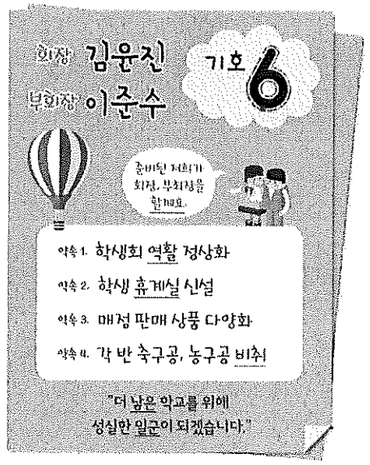
소단원 열기

● 표기에 주목하여 다음 자료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활동 안내 학생 회장 선거 포스터를 보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 동기를 유발하려는 활동이다.

지도 Tip

활동 물음에 답하기 전에 선거 포스터의 내용 가운데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들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도록 한다. 그런 다음 제시된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여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1) 위 선거 포스터를 본 학생들은 후보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시 답안

- 기본적인 맞춤법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게 될 것이다.
- 우리말에 대한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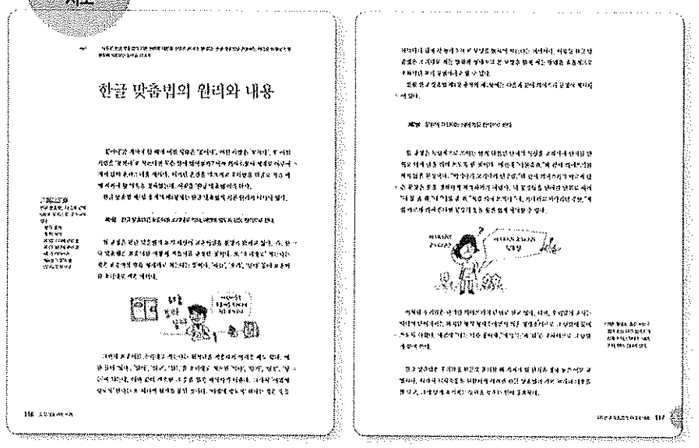
풀이 포스터에서 밑줄 친 단어는 각각 '할게요', '역할', '휴게실', '비치', '나은', '일꾼'이라고 적어야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2) 일상생활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여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친구가 '시레기'가 고장 나서 찜통더위 속에서 공부했다는 내용을 온라인 대화창에 올렸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에어컨) 실외기'를 잘못 적은 것이었다.

본문 지도

교과서 116~117쪽



본문 지도의 중점

-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담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글 맞춤법 제2항을 바탕으로 하여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올바른 표기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재 원리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제재 선정의 취지

이 단원에서는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약속인 '한글 맞춤법'을 관통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 제재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집필한 설명문이다.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1항과 제2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이를 적용하여 한글 맞춤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재 개관

갈래	설명문	성격	객관적, 예시적
제재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		
주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이해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의 필요성		
특징	①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② 한글 맞춤법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대신에 핵심 원리에 해당하는 제1항과 제2항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해제	이 글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설명한 글이다. 한글 맞춤법 제1항과 제2항을 중심으로 하여 한글 맞춤법 전체를 꿰뚫는 원리를 설명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글의 구성

처음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까닭	교과서 116쪽 4~7행
중간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교과서 116쪽 8행~117쪽 16행
끝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의 중요성	교과서 117쪽 17~19행

본문 해설

핵심 강의

-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까닭**

  서로 다른 표기로 인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함.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제1장 총칙 제1항)**
  - 표준어를 대상으로 함.
  - 소리대로 적음. + 어법에 맞도록 함.

지도 Tip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방언의 표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 명언을 소리대로 적은 후 짝과 교환하여 그 내용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추가하면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간 | 116쪽 17행~117쪽 1행

1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게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의미이다.

↳ 어법(語法)이란 언어 조직의 법칙, 또는 언어 운용의 법칙이라고 풀이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참고 자료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과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어법에 맞게 적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ㄱ)처럼 적었다. 표음주의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쓰기에는 편하지만, 읽어서 그 뜻을 해독하는 데는 매우 불편하다. 만약 그 당시에 어법에 맞게 적는 표의주의를 따랐다면 (ㄴ)처럼 적었을 것이다. 표의주의는 어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어서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원형을 밝혀서 적기 때문에 발음과는 동떨어진 표기가 많아서, 표기의 원리를 학습을 통해 터득해야 한다.

ㄱ. 시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ᄊᆡ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용비어천가 2장)

ㄴ. 심이 깊은 믈은 가ᄆᆞ래 아니 긏을ᄊᆡ 내히 일어 바ᄅᆞ래 가ᄂᆞ니

표음주의 원칙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계속 지켜지다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면서 표의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표준말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한글은 음운 문자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반영하되, 어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였던 것이다.

1988년에 제정된 현행의 〈한글 맞춤법〉은 표의주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 임지룡 외,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2014, 534쪽.

●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 이유

이 원칙은 모든 언어 형식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형식 형태소의 경우는 변이 형태(變異形態)를 인정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막-아 / 먹-어　　소-가 / 말-이

예컨대 위와 같이, 음운 형태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한 가지 형태로 통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다만, 한자어의 경우는, 예컨대 '국어(國語) 〈나라+말〉, 남아(男兒) 〈남자+아이〉'처럼, 결합한 글자가 각기 독립적인 뜻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각 글자의 음을 밝히어 적는 것이다.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한글 맞춤법 제1항 해설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한글 맞춤법을 수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 국어문화학교(https://edu.korean.go.kr):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수강 신청-[수시 강좌] 한글 맞춤법

※ 표음주의: 맞춤법에서,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발음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교과서 116 · 117

117쪽 13행

2 이처럼 우리말은 단어를 띄어쓰기의 단위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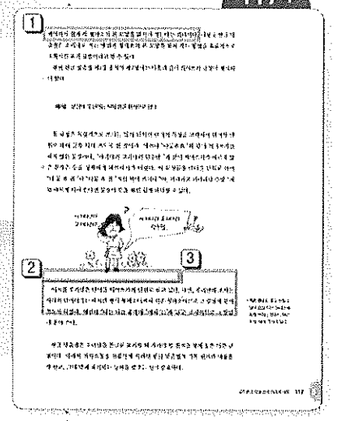
↳ 단어는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장을 쓸 때에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한 것이다.

117쪽 13~16행

3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기는 하지만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므로 그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하였다. 예컨대 "나는 너를 좋아해."에서 '는'과 '를'은 조사이므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조사는 단어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난다.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주로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앞말에 붙여 쓴다.

117쪽



핵심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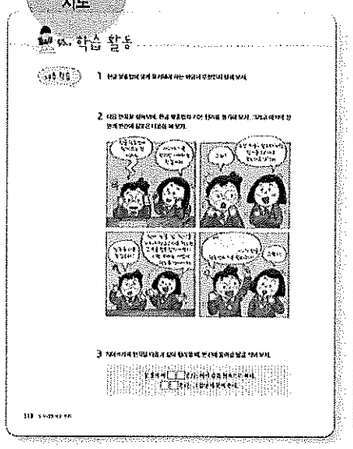
-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제1장 총칙 제2항)**
  - 각 단어는 띄어 씀.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씀.(제5장 띄어쓰기 제4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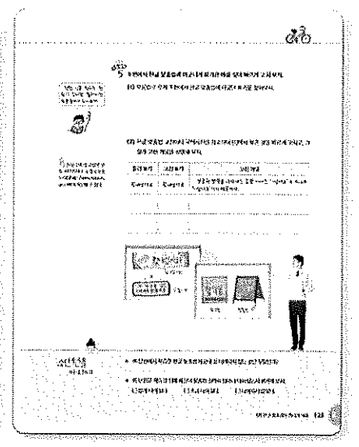
지도 Tip

띄어쓰기와 관련한 상세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1항~제50항에 실려 있다. 상세한 규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제2항의 내용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활동 지도

교과서 118~123쪽





내용 학습

▸ 교과서 118쪽

1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활동 안내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한글 맞춤법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추측해 보도록 하여, 한글 맞춤법이 제정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

예시 답안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과서 118쪽

2 다음 만화를 살펴보며,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 보자.

활동 안내 본문에서 학습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만화 속 두 학생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빈칸에 적합한 문장을 쓰도록 한다.

예시 답안

지도 Tip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한다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교과서 118쪽

3 띄어쓰기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자.

활동 안내 한글 맞춤법의 내용 가운데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를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띄어쓰기 역시 한글 맞춤법의 영역에 속함을 알고 단어와 조사의 개념에 유의하여 띄어쓰기의 대원칙을 이해하도록 한다.

문장의 각 [단][어]은/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은/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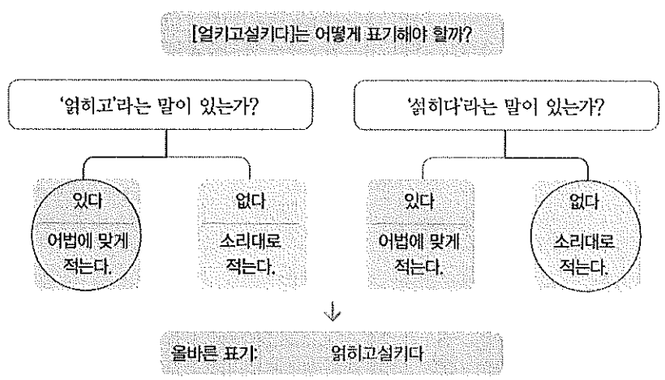
목표 학습

• 교과서 119쪽

1 다음 활동을 통해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탐구해 보자.

활동 안내 '얽히고설키다'의 올바른 표기를 찾아 가는 탐구 과정을 학습하고,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쓸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게 함으로써, 한글 맞춤법을 관통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다.

(1) 다음 탐구 과정에 따라 '[얼키고설키다]'의 올바른 표기를 알아보자.



풀이 '얽히다'는 '노끈이나 줄 따위로 이리저리 걸다.'를 뜻하는 '얽다'의 어간 '얽-'과 피동 접사 '-히-'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뜻을 파악하기 쉽게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어야 한다. 반면 '설키다'는 '섥히다'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밝히어 적어야 하는 형태소의 본 모양이 없다. 따라서 소리대로 적는 방식을 따라 '설키다'로 적어야 한다.

지도 Tip

'얽히다'와 '섥히다'를 실제로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게 하여 두 말이 등재되어 있는 단어인지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2) 다음 자료를 살펴보고,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말의 뜻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활동 1-(2)의 자료와 같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할 때 어법에 맞게 적어야 할 말을 소리대로 적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말해 보게 한다.

• 교과서 120쪽

2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알아보자.

활동 안내 한글 맞춤법 규정의 일부 조항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단어의 표기가 올바른 것을 찾고 그렇게 쓰는 이유를 탐구해 보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한글 맞춤법 규정을 가까이하여 정확한 표기 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길이, 얼음, 많이, 익히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마개, 자주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곳곳이, 바둑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끄트머리, 바가지

지도 Tip

단어를 소리대로 적어야 하는 경우와 어법에 맞게 적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보는 활동을 통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서 119 · 120

(1) 다음 문장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고, 이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연결해 보자.

㉠ 먼 데서 다드미/다듬이 소리가 들린다.	제19항
㉡ 친구가 온다기에 마중/맞웅 을 나갔다.	제19항 [붙임]
㉢ 산들바람에 이파리/잎아리 가 흔들렸다.	제20항
㉣ 사건의 실상을 난나치/날날이 밝혀내었다.	제20항 [붙임]

* '마중'의 경우 우리말샘 사전에서는 '맞-'과 '-웅'이 결합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맞-+-ㅇ+-이'가 결합하여 된 말로 보고 있다.

풀이

㉠ 다듬이: 동사 '다듬다'의 어간 '다듬-'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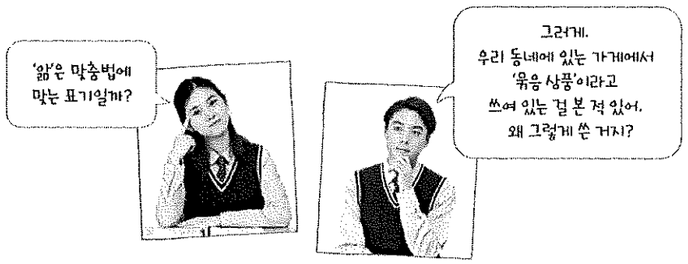
㉡ 마중: 동사 '맞다'의 어간 '맞-'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웅'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

㉢ 이파리: 명사 '잎'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아리'가 붙어서 된 말.

㉣ 날날이: 명사 '날날' 뒤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

(2) 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학생들의 궁금증에 답해 보자.

앎은 힘이다.



예시 답안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따라서 '알다'의 어간 '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앎', '묶다'의 어간 '묶-'의 본 모양을 밝혀서 '묶음'으로 적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앎'은 어간 '알-'에 접미사 '-ㅁ'이 붙은 것이다. 한편 어간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적어야 함을 따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예 은혜를 베풂.
놀이터에서 놂.

핵심 강의

●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1) 용언의 어간 + 접미사

- 어간 + '-이'나 '-음/-ㅁ' → 명사
  어간 + '-이'나 '-히' → 부사
  ⟶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음.
- 어간 +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 명사, 부사 등
  ⟶ 소리대로 적음.

(2) 명사 + 접미사

- 명사 + '-이' ⟶ 원형을 밝혀 적음.
- 명사 +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 소리대로 적음.

• 교과서 121쪽

3 다음 만화에 제시된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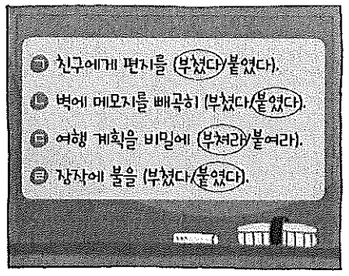
활동 안내 실제 언어생활에서 헷갈릴 수 있는 단어의 올바른 표기와 쓰임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평소 국어사전을 잘 활용하여 정확한 언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부치다[02] 「동사」
[1] […을 …에/에게] […을 …으로]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
[2] […을 …에]
①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②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붙이다[부치-] 「동사」
[1] […에 …을]
① '붙다[1]①(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의 사동사.*
② '붙다[1]③(불이 옮아 타기 시작하다.)'의 사동사.

*사동사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



풀이
㉠ 부쳤다: 부치다[02][1] –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
㉡ 붙였다: 붙이다[1]① – '붙다[1]①(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의 사동사.
㉢ 부쳐라: 부치다[02][2]② –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 붙였다: 붙이다[1]② – '붙다[1]③(불이 옮아 타기 시작하다.)'의 사동사.

지도 Tip
한글 맞춤법 제57항에는 발음이 같거나 비슷해서 표기할 때 혼동을 일으키는 단어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280~281쪽 '수업 연구 자료'에 수록) 이를 활용하여 퀴즈 형식의 활동을 만들 수도 있다.

• 교과서 122쪽

4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참고하여 바르게 띄어 쓰는 활동을 해 보자.

활동 안내 한글 맞춤법 가운데 띄어쓰기와 관련한 규정을 평소 띄어쓰기 시 어려움을 겪는 말들에 적용해 보는 활동이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띄어쓰기가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예 꽃을 꽃밖에 꽃이나마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예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예 차 여섯 대 옷 한 벌 신 두 켤레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띄어 써 보자.

Ⓐ 소녀의 얼굴빛이 눈같이∨하였다.
친구와∨같이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풀이 • 첫 번째 문장: '같이'가 체언 뒤에 쓰이면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두 번째 문장: '같이'가 격 조사 '과'나 여럿임을 뜻하는 말 뒤에 쓰이면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이제 믿을 것은 오직∨실력뿐이다.
그는 그저 웃고∨있을∨뿐이었다.

풀이 • 첫 번째 문장: '뿐'이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쓰이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두 번째 문장: '뿐'이 관형어 뒤에 쓰이면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날씨가∨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그∨책을∨다∨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풀이 • 첫 번째 문장: '-ㄴ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기 때문에 용언 어간에 붙여 써야 한다.
• 두 번째 문장: '데'는 '곳'이나 '일', '것', '경우' 등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고향을∨떠나온∨지 벌써 십 년이 지났구나.
너는∨어떻게∨생각하는지 궁금해.

풀이 • 첫 번째 문장: '지'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두 번째 문장: '-는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기 때문에 용언 어간에 붙여 써야 한다.

지도 Tip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는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2항'에 제시되어 있듯이 단어를 단위로 띄어 쓴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42항과 제43항도 이를 따른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에서 '-ㄴ데'는 어미이고,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설명은 웬만한 문법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ㄴ)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그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한다.

핵심 강의

● 띄어쓰기가 헷갈리는 말

(1) 같이
- 체언 뒤에 쓰이면 → 조사(붙여 씀.)
- 조사 '와/과' 뒤에 쓰이면 → 부사(띄어 씀.)

(2) 뿐
- 체언 뒤에 쓰이면 → 조사(붙여 씀.)
- 관형어 뒤에 쓰이면 → 의존 명사(띄어 씀.)

(3) 데 / -ㄴ데
-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 의존 명사(띄어 씀.)
-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으면 → 어미(붙여 씀.)

(4) 지 / -ㄴ지
- 의미상 '시간의 경과'와 관련 있으면 → 의존 명사(띄어 씀.)
- 의미상 '시간의 경과'와 관련 없으면 → 어미(붙여 씀.)

지도 Tip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해당 단어의 품사별로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용례를 찾아 비교해 가며 지도할 수 있다.

(2) 다음 글에서 띄어 써야 할 부분에 ∨ 표시를 해 보자.

예시 답안

형편없는∨찻감만∨아니라면∨차∨한∨잔으로도∨삶에∨대한∨잔잔한∨기쁨과∨감사를∨누릴∨수∨있을∨것이다.∨요는∨그∨차가∨지닌∨특성을∨알맞게∨우릴∨때∨바로∨'그∨차∨맛'을∨알∨수∨있다.∨사람의∨일도∨마찬가지다.∨인격에∨고정된∨어떤∨틀이∨있는∨것은∨아니다.∨그∨사람이∨지닌∨좋은∨덕성을∨찾아낼∨수∨있다면∨그는∨내게∨좋은∨친구가∨될∨것이다.

– 법정, 〈거꾸로 보기〉에서

풀이 '형편없는'과 '찾아낼'의 경우 애초에는 앞말과 뒷말이 각각 단어의 자격을 가지므로 '형편 없는', '찾아 낼'과 같이 띄어 썼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단어가 함께 쓰이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두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었기 때문에 '형편없는'과 '찾아낼'로 붙여 써야 한다.

• 교과서 123쪽

활동 5 주변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한 예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활동 안내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 잘못 표기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자신의 주변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한 사례들을 찾아 이를 바르게 고치고 친구들과 공유해 봄으로써 정확한 언어생활을 내면화하여 실제 언어생활에 적극적으로 한글 맞춤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모둠별로 우리 주변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찾아보자.

예시 답안 선배님들, 힘내십시요!(현수막) / 최고의 합격율(전단지) / 짭잘한 맛이 일품!(간판) 등

상황에 따라 이렇게

주변에서 찾은 사례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인지 확인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국어사전 찾기
- 한글 맞춤법 규정 찾아보기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온라인가나다' 게시판에 질의하기
- 우리말 배움터 누리집(http://urimal.cs.pusan.ac.kr)의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 활용하기

(2) 한글 맞춤법 규정이나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1)에서 찾은 것을 바르게 고치고, 그렇게 고친 까닭을 설명해 보자.

예시 답안

틀린 표기	고친 표기	고친 까닭
힘내십시요	힘내십시오	정중한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요'가 아니라 '-십시오'이기 때문이다.
합격율	합격률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렬, 률'로 적어야 한다.(제11항 다만)
짬잘한	짬짤한	받침 'ㄱ, ㅂ'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제5항, 제13항)

수업 아이디어

모둠별로 조사한 자료들을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 다른 모둠원들이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찾고,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소단원을 마치며

교과서 123쪽

● 이 단원에서 학습한 한글 맞춤법 가운데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활동 안내 소단원 (2)에서 학습한 내용 중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 보게 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예시 답안 • 띄어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 부족하다.
• '붙이다/부치다'와 같이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구별하여 쓰는 것이 어렵다.

● 이 단원을 학습한 뒤에 자신의 맞춤법 실력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평가해 보자.

☑ 많이 나아졌다. ☐ 조금 나아졌다. ☐ 나아지지 않았다.

활동 안내 소단원 (2)의 학습 목표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므로, 이 단원의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실제 언어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점검해 보게 한다.

예시 답안 • '반드시/반듯이'처럼 혼동하여 쓰기 쉬운 단어를 구별해 적을 수 있게 되었다.
• 조사와 의존 명사에 대한 띄어쓰기 실력이 늘었다.